

# 6가지 주제에 대한 단상

Video on the Web 2008

Panel Discussion 기초자료

SBSi 미디어기획팀장 박종진

# 1. IPTV와 온라인 비디오의 정의와 경계는?

구분	Online Video	IPTV
서비스 사업자	다수 (개인,중소기업,대기업)	소수(통신사)
서비스 지역	전세계 (언어/문화적 제약)	국가/지역 (법규제 제약)
서비스 방식	개방형 (웹의 태생이 표준기반 개방적)	폐쇄형 (통신의 태생이 폐쇄적)
서비스 인프라 (network)	Best Effort (IP망)	NGN, QoS보장 (IP망)
서비스 매체 (Device)	PC	TV (+STB)
콘텐츠 제공	다수 User (UGC), 소수 Major(전통적 콘텐츠 제작사)	소수 Major(전통적 콘텐츠 제작사)
수익 모델	무료 광고 중심, 작은 유료시장	유료 가입자 중심 (크기가 정해진 광고시장?)

- IPTV를 가리고 묻는다면? 끈 달린 TV (케이블TV)
  - ☞ 케이블과의 다른 점은? IP망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무한대에 가까운 채널 수
- Online Video를 가리고 묻는다면? 웹사이트, 포털, 온라인 서비스
- 경계를 따진다면? PC와 TV의 차이에서 찾아야, (IPTV의 Video도 온라인이란 점에서 보면 비교대상이 아님)

# 1. IPTV와 온라인 비디오의 정의와 경계는?

- (질문을 바꾸면) 온라인 비디오가 IPTV와 PC에서 다른 점은?

디지털 플랫폼별 콘텐츠 특성 차이<sup>108)</sup>

TV/방송의 콘텐츠 속성	PC/인터넷 콘텐츠의 속성	모바일/텔레폰 콘텐츠의 속성
비디오 중심 (텍스트보다 동영상에 중심)	비디오 약간 (비디오 보다는 텍스트나 그래픽 중심)	음성 기반 (그래픽, 비디오, 텍스트보다 오디오 중심)
오락 기반 (교육환경보다 여가활동 제공)	작업 기반 (오락보다는 작업관련 또는 교육 정보나 생산성 증진 목적)	작업 및 사회적 기반 (오락적 목적보다는 정보와 관련된 작업제공, 생산성 증진 목적)
가족이나 사회 접속 용도	고립적 개인 용도	두 개인 간 접속 용도
이용자는 콘텐츠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수동적인 수신, 생방향성 없음 선형적인 형식	이용자는 비선형적으로 만든 콘텐츠로 상호작용함	중앙집중적으로 생산된 콘텐츠 제공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비선형적으로 만든 콘텐츠로 상호작용함
정보 중간 (사실적 정보를 전송하지만 세세하지 않음)	정보 중심 (사실적 정보를 세세하게 전달)	비음성 기반의 자료송출, 연성정보임 (SMS문자나 WAP폰으로 송출된 문자정보는 빈약함)
중앙집중적 생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서)	중앙집중적 생산 (CD-Rom이나 웹사이트 콘텐츠) 이용자 생산 (이메일, 차트, 개인화 등)	유리한 이용자 생산
긴 형식 (프로그램 전형은 25분 단위)	짧은 형식 (비디오 정보는 클립이나 발췌문)	짧은 형식 (텍스트와 웹사이트 간결, 클립이나 발췌형식의 음성)

- Lean Back, Lean Forward의 차이
  - IPTV 개인화가 아닌 '세대화'

## 2. Problem on current IPTV?

- 현재 IPTV 관련 사업자가 매우 다양하고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고, 인터넷 진영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데, 현 IPTV서비스의 가장 큰 걸림돌 또는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 어떤 인터넷 기업이 IPTV에 도전하는가? 또 인터넷 기업이 강점이라고 말하는 UGC, 유연성, 쌍방향성의 경험이 초기시장에서 중요한 요소일까?
  - Open IPTV사를 보면 결국은 자본의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가 해결된 후에,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면 앞에서 말한 강점이 경쟁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경쟁이 안된다.
  - 왜 자본문제가 중요한가?
    - 콘텐츠 (TV, 영화)
    - 플랫폼 (네트워크, STB 등등)
    - 마케팅

- UGC
- 유연성
- 쌍 방향성 (광고)

## 2. Problem on current IPTV?

- 현재의 IPTV가 웹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는?
  - 제한된 웹 콘텐츠 접속
    - 컨버전스가 제한된 Data On the Video
- 반대로 이런 질문도 가능 현재의 웹이 IPTV를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는?
  - 폐쇄적 환경, 사업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것을 비난/비판

### IPTV의 미래 발전 가능성

ETRI

- 현재의 (통신사업자 기반)IPTV는 STB와 TV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응용서비스로서 보편적 PC와는 환경이 달라 Heavy 한 웹 응용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
- 따라서 현재의 (통신사업자 기반)IPTV의 경우 제한된 웹 콘텐츠에 대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해당 웹 콘텐츠도 IPTV환경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것임
- 그러나 일부 웹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는 Web TV의 경우 자유롭게 웹 콘텐츠에 접속 가능
- 디스플레이 장치가 TV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웹콘텐츠를 그대로 TV를 통해서 볼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음
  - ❖ PC와 TV가 지원하는 해상도가 차이로 인한 문제

### ◆현행 IPTV의 문제점

- 기존 “방송 + IP” 기술의 단순결합
- 거실에서 보는 유선 기반의 고품질 인터넷 TV 개념
- 사업자 중심의 Walled Garden 서비스 (공급자 지향)
- 새로운 부가가치 서비스 모델 미흡/부재

ETRI 박기식 연구위원

### 3. Copyrights for Video Contents?

- 새로운 콘텐츠 유통방식에 따른 저작권에 대한 시각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은?
  - 시각은 변화되고 있다.
    - 전통미디어 시각
      - 변화되지 않는, 고정된 것은 아님
      - 기존 시장과의 Cannibalization을 걱정하는 것
      - 시장 구조(비즈니스모델) 변화가 더딘 것
      - 하지만, Contents를 요구하는 벤처
    - OSP 시각
      -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요구
      - 이용자/사용자의 니즈를 이야기하면서 요구
      - 하지만, 전통미디어에서 여전히 온라인시장은 틈새
  - 재정학에서 말하는 로빈후드의 법칙
    - 저작권법이 성립되는 배경은? 왜 저작권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 (원론/법정신으로 돌아가서)
      - 양질의 콘텐츠
    - "UGC로만 채운다, UGC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가능성과 현실성, 시차/GAP을 생각하지 않는 것

## 4. Web, the Impact of IPTV?

- 웹(차세대 웹 또는 웹2.0)이 온라인 비디오에 끼친 영향이 있다면?
  - Impact는 인과관계에서 보면 뒤에 오는 것이 선행하는 것에 주는 영향
  - 그렇다면, IPTV가 Web에 주는 Impact를 말하고, 그에 따라 IPTV와 Web이 어떻게 상호변화/진화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바름
    - Web의 TV화 (→ Web의 확장)
      - 풀브라우징 모바일과 같은 개념
      - TV에서 UGC/UCC 이용 가능성 증대
    - IPTV(또는 TV)가 서비스/쌍방향성에서 웹의 성과를 수용
      - 맥루한 : 후행하는 미디어는 선행하는 미디어의 성과, 틀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음
      - 기술, 서비스 구조 등을 수용해야
  - 그후, Web에 IPTV의 Impact가 올 것
    - 웹의 방대한 콘텐츠/정보 관리 방법
      - 메타데이터 표준화
      - 콘텐츠 표준화
      - Cross Media를 위한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웹 표준 (XML, RDF, RSS...)

※ 삼성전자 박수홍박사 발표문 참고

## 4. Web, the Impact of IPTV?

- 이로 인한 미래 IPTV 서비스의 예상되는 판도 변화는?
  - 먼저 개방하는 서비스 사업자, 웹과 먼저 결합하는 사업자가 성공할 것
    - 소비자는 개방된 플랫폼을 요구
      - (그룹은 나뉘져 있겠지만) 모든 서비스의 이용을 원한다는 것
    - IPTV는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웹의 분산형 서비스 구조와 결합되어야 함

### ◆ IPTV 2.0 => 사용자 중심형 & 서비스 지향형

- (사용자에겐) 편리한 IPTV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단말이나 망에 구애 받지 않는 IPTV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제공자에겐) 누구든 언제든 원하는 형태의 IPTV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어야 함

ETRI 박기식 연구위원

# 5. Technology & Standards Issue?

- 기술과 표준에 있어서 남은 숙제가 있다면?
- 특히, 미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표준화 이슈는?
  - 인프라에서 "표준이란 무엇인가? 왜 표준화하는가?"이런 근본적 질문을 한다면 현재의 IPTV표준은 표준이 아닐 수도 ...
    - IPTV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상호호환성이 중요
    - 모바일에서 USIM칩과 같은 것이 필요
  - 서비스
    - 초기 IPTV는 "Data On the Video" →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상파 데이터 방송' 정도
    - Data(웹)과 Video(TV)의 Convergence / 방송과 통신 융합
      - "Convergence - 집중, 수렴"을 위해 Data(웹)/네트워크가 좀 더 지능화되어야 함  
→ 시맨틱 웹 / 인공지능 / smart network
        - » Convergence의 목적은 Divergence를 위한 것
      - "Divergence"는 확산/발산 → 이용자가 원하는, 개인화된 곳으로 보내는 것
        - » 분산적 환경 / 분산된 정보제공자(개인 블로거, 기업 등)
      - 수백만 가구가 TV를 보다가 각 시청자가 다른/개인화된 정보를 가져다 보는 것
    - 유기적 연결을 위한 서비스 간 / 플랫폼 간 연결성(기술)을 확보하는 것

# 5. Technology & Standards Issue?

- 기술과 표준에 있어서 남은 숙제가 있다면?
- 특히, 미래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표준화 이슈는?
  - 인프라에서 "표준이란 무엇인가? 왜 표준화하는가?"이런 근본적 질문을 한다면 현재의 IPTV표준은 표준이 아닐 수도 ...
    - IPTV 인프라의 상호운용성/상호호환성이 중요
    - 모바일에서 USIM칩과 같은 것이 필요
  - 서비스
    - 초기 IPTV는 "Data On the Video" →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상파 데이터 방송' 정도
    - Data(웹)과 Video(TV)의 Convergence / 방송과 통신 융합
      - "Convergence - 집중, 수렴"을 위해 Data(웹)/네트워크가 좀 더 지능화되어야 함  
→ 시맨틱 웹 / 인공지능 / smart network
        - » Convergence의 목적은 Divergence를 위한 것
      - "Divergence"는 확산/발산 → 이용자가 원하는, 개인화된 곳으로 보내는 것
        - » 분산적 환경 / 분산된 정보제공자(개인 블로거, 기업 등)
      - 수백만 가구가 TV를 보다가 각 시청자가 다른/개인화된 정보를 가져다 보는 것
    - 유기적 연결을 위한 서비스 간 / 플랫폼 간 연결성(기술)을 확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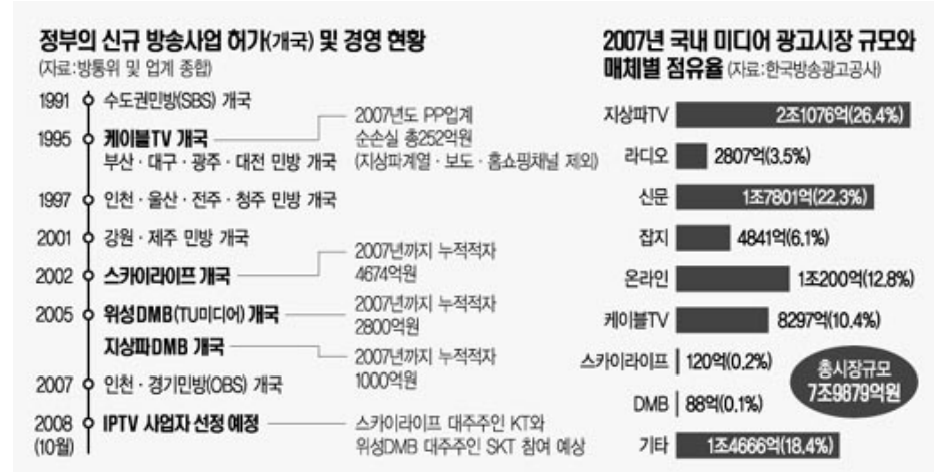
# 6. Video, Success Strategy?

- IPTV가 성공하기 위한 핵심요소와 전략은?
- 다양한 플레이어간의 상생전략은?
  - NGN(BcN)망과 IPTV 플랫폼의 개방
    - 통신사는 전체 Value의 10% 정도
  - 방송사/PP 등에게 새로운 시장이 아닌, 대체시장
    - Data On the Video, Convergence after Divergence 모델
  - SME(중소기업) 서비스 모델
    - ASP 서비스 / Service Delivery Platform
  - 트래픽의 증가가 통신사의 매출이 될 것

### 미래 IPTV 서비스 성공 전략

1. **(사용성)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해라**
2. **(유인성) 사용자의 시간을 뺏아라**
3. **(다양성) 롱테일 콘텐츠를 활용해라**
4. **(상업성) 새로운 방식으로 광고를 활용해라**
5. **(가치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연계해라**
6. **(협력성) 콘텐츠 및 인터넷 사업자와 협력해라**
7. **(경쟁성)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라 (표준기반)**

ETRI 박기식 연구위원



출처: "방통위 'IPTV 밀어붙이기' 안된다." (경향신문)